우리농업, 농촌이 이렇게 가야합니다

Ⅲ. 농업·농촌과 농지

(續)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농업은 민족의 생존산업입니다. 농촌은 우리 민족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지는 또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업·농촌·농지의 환경 또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며 이들 문제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할 때가 왔습니다.

<농림수산부제공>

1、농지는 왜 중요한가

1、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생산의 3대요소라 하면 토지·노동·자본을 말하듯이 농업의 3대 생산요소는 농지·노동·자본을 말하며, 이 중 농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쌀등 곡물농업에 있어서 농지의 중요성은 시설농업의 경우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지면적이 좁은 나라일수록 농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농지의 사용대가인 토지용역비가 미곡의 경우 전체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4%나 되는 등 일본의 17.4%, 미국의 14.1%보다 훨씬 큰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요소라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농지의 중요성은 해방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실시한 제도개혁이 1949년의 농지개혁이라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농지에 대한 기본정신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농지규모확대, 우량농지 보전, 농지생산기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농지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자금지원, 농지 소유상한 확대, 농지임대차 활성화 등의 시책과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농지전용의 합리적 규제 시책 및 농지생산기반 정비 10개년 계획등은 농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크게 감소한 오늘날에는 농업의 비중이 크던 과거보다 농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농지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국토가 황폐화하게 되며, 자칫 잘못하여 투기의 수단이 되거나 특정 개인이 비생산적으로 농지를 이용한다면 그 손해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농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농지는 농업의 생산요소라는 측면이외에도 농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농민이 생활하는 장소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토의 21%나 되는 농지는 농촌의 농민이 주로 생활하는 터전인 것입니다. 농가자산면에서의 농지의 비중은 89년에 61%나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3、공익적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은 바로 농지가 갖는 수자원 함양기능, 토양유실 방지기능, 녹자원 생산기능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때 농지는 농업의 생산요소, 농가의 자산, 농민의 생활터전이라는 측면이외에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이익을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지는 산지와 더불어 택지·공업용지·도로용지 등 공공시설의 용지를 제공하는 자원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택지나 공업용지, 도로용지등 공공시설 용지가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편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2、농지제도의 체계와 변천과정은

1、농지개혁법에 의한 자작농창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래 경자유전 원칙과 3정보 소유상한 및 절대농지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식량자급을 기하는 자립농육성이 기본이념입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은 1949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시의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 정신에 따른 자작농 창설과 유지를 통한 사회안정과 농업생산성의 제고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하에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케 함으로써 농지의 구입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아울러 농지소유한을 3정보로 고수케 함으로써 1970년의 산업화·도시화 이전까지는 농가간 균형을 유지하여 농촌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2、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농지제도 도입

1972년에는 식량자급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보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농지보전과 이용규제에 역점을 두어 주곡의 자급달성과 국토의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정부의 고미가정책과 농지기반조성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우리농업도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농업부문 종사자와 대등한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우리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져 농촌의 가계생활 수준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게된 원인은 전통적인 소농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영세소농구조가 지속된 것은 무엇보다도 농지제도의 기본틀이 아직도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의 법체계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온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950년의 『농지개혁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령 제정을 위해 1958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6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8년 제1차 농지법제정 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1970년도 초반까지의 시도과정에서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부합되는 법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40여년전의 농지개혁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농어촌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필요시되는 타법률의 제정시 농지관련법을 포함시키는 식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후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된 1980년 제5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1986년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법은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도입

그리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장에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대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 한 절대농지제도는 필지별 보전방식이기 때문에 권역별 보전방식인 『국토이용관리법』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우량농지 확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토지이용 공간인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連載 **栽培教室**

93신규회원을 위하여…

목단(牧丹)

1、학명·Paeonia moutan Aiton

2、과명:작약과Paeoneaceae

3、성분:Paeonol(配糖體)

4、용도:소염,진통,정혈,해열,치질,맹장염

5、약용부위:근피(根皮)

6、재배법

가、적지

○기후:따뜻하고 건조한 곳이 적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납부지방에 재배하는 것이 잘 자란다.

○토질:배수가 잘되고 유기질이 풍부하며 겉 흙 밑에는 다소의 자갈이 있는 질참흙이나 점질양토로서 동남향으로 비탈진 곳이 가장 적당하다.

나、품종:

목단의 품종은 상당히 많으나 약용품종이 따로 육성되어 있지 않고 원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Paeonia、Moueon、Sims이다.(홑꽃, 겹꽃, 목목단, 초목단, 반초목단등이 있다.)

다、번식:종자, 분주, 접목법으로 한다.

라、재배요점

○분주법

(1)시기:9월하순~10월중순

(2)방법:모주의 뿌리 부근에 많이 발생하는 포기 싹눈을 나누어 심거나 수확하였을 때 굵은 뿌리를 잘라 내고 남은 묘두를 충실한 것이면, 2~3개의 눈이 붙은 것을 잘 분주하여 식재한다.

○종자번식

(1)파종시기:9월상순

(2)종자준비:8월하순~9월 상순경 종자의 빛깔이 흑갈색으로 윤택이 날때 채종한다.

(3)종자 처리 및 파종:목단의 종자는 경실종자로써 채종후 바로 묘상에 파종하거나 습기가 있는 모래에 저장하였다가 9월하순경에 파종한다.

(4)파종방법:묘판에 퇴비, 유박, 계분 등의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넣고 정지하여 120㎝의 두둑을 만들고 줄뿌림 또는 점파하고 2~3㎝정도 복토한다. 그리고 짚이나 건초를 깔아 주어 표토의 굳어짐과 땅의 건조를 막는다.

※종자 1대 모래 3의 비율로 섞어서 하른하게 자루에 넣고 60㎝정도 깊게 구덩이 파고 묻어둔다.(30일 정도) 희끗희끗하게 싹아나면 묘판에 뿌리고 흙을 2~3㎝ 덮고 짚이나 갈잎을 덮고 잎이 올라오면 피복을 제거한다.(최아파종법)

마、정식

○시기:9월하순~10월중순, 추운 지방일수록 빨리 심는 것이 좋다.

○식재거리:90㎝간격으로 두둑을 만들고 주간 간격 60㎝로 식재 후 흙을 덮는다.

○종묘 소요량:3백평당(10a) 1,800주

7、시비및 관리

가、시비:(1)기비:3000평당(10a) 1,200㎏ 용성인비 또는 용가린 45㎏, 유박 200㎏, 계분 200㎏

(2)추비:인분뇨를 심은 뒤에 한번 주고 다음해 봄에 반쯤 물에 묽게 타서 준다.

나、주요관리

○중부이북지방에서는 월동시 짚을 덮어 준다.

○채종 및 절화용외는 개화전에 꽃대를 제거한다.

다、병충해 방제

①보투리트스병:꽃봉우리, 꽃잎, 잎자루에 발생, 심하면 줄기가 말라 죽는다.(질소질 과다시 발생)8-8、6-6보르드액 살포하고 피해 부분은 제거한다.

②백견병:6~8월경 심하다. 숙근이나 구근심을때나 연작시 발생(줄기나 뿌리에 피해줌) 그 외도 지고병, 수병, 엽반병등이 있다. 모두 8-8、6-6보르드액을 살포하면 효과가 있다.

③충해:하늘소벌레, 개각충, 진딧물등이 생기는데 하늘소벌레는 석회유황합제 보매 5도액을 살포, 5~6월경 개각충, 진딧물 기타 벌레 발생시는 10~15일 간격으로 방제농약을 2~3회 살포해준다.

8、수확과 조제

○시기:정식후 3~4년째 9월중 하순

○조제:잘라낸 뿌리를 물에 깨끗이 씻어 대칼이나 딱딱한 푸라스틱솔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고 뿌리는 5~6㎝내외로 끊어서 목질부(심)을 배내고 낮에는 양건하고 저녁이나 우천시에는 건조실이나 온돌방에서 단시일내에 말린다. 수확량은 300평당 생근 2,600㎏(4,300근)건근으로 1,000㎏(1,600근)정도이다.

※유의할 점

○노력이 들드라도 통복으로 거심해야 한다.

○건조시에는 광택(색깔)에 유의하여 건조해야 한다.

○물에 깨끗이 씻어 건조해야 한다.

○건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품질이 좋다.

목단(牧丹)